인민의 주권을 세우시던 나날에

공화국이 창건되기 전인 1948 년 8 월 25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기 위하여 평양시 제 7 호선거구 제 10 호분구 선거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선거에 참가한 군중들은 열렬한 환호를 터치였다.

이윽하여 선거장으로 들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복도바닥에 흰 명주천을 깔아놓은것을 보시고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명주야 인민들이 옷을 해입는데 써야지 우리가 밟아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굳이 사양하시였다.

선거장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에게 력사적인 첫 투표를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은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세우는 참으로 의의깊은 날이라고, 우리 나라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지만 로동자, 농민의 대표를 자기 손으로 선거하여 주권기관에 파견한 일은 일찌기 없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명절옷차림에 춤추고 노래부르면서 선거장으로 향하는 선거자들을 보시면서 보라,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바라던 새 나라, 새 정부를 세우게 되였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는것은 오늘 선거를 통하여 또다시 확증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난날 우리는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적선거를 통하여 진정한 인민의 혁명정권을 세우고 부강한 새 조국과 새 사회를 건설하려고 갖은 고생을 이겨가며 피어린 투쟁을 조직전개하였다고, 오늘의 이 행복과 경사를 안아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싸웠다고, 그러므로 우리모두는 오늘의 이 선거를 결코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하며 애국의 한표를 조국의 번영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정성껏 바쳐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력사적인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1948 년 9 월상순 평양에서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 1 차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